

## 아동문학 번역시 스키포스 이론의 적용

신 지 선  
(한국외대)

### 1. 서론

1970년대에 들어 번역학은 일대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이전의 번역학 연구는 대체로 텍스트의 언어적인 측면에 집중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의 텍스트 종류에 따른 번역 연구(Text Type Approach)를 필두로, 이후 텍스트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홀츠 멘테리(Holz-Mänttari)는 커뮤니케이션 이론(Communication Theory)과 행위이론(Action Theory)에 입각하여 번역을 하나의 행위로 파악하였고(Munday, 2001: 77), 비슷한 시기에 한스 페르미어(Hans Vermeer)는 번역의 목적을 강조하는 스키포스 이론(Skopos Theory)을 전개하였다.

스키포스 이론은 번역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며 번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비문학 텍스트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문학 텍스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장르 중에서 아동문학<sup>1)</sup> 분야는 스키포스 이론을 적용하여 번역하기에 적합함을 밝히기 위하여, 스키포

스 이론의 개념을 살펴보고, 스코포스 이론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에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스코포스 이론의 개념

1980년대 초반에 독일에서 번역의 목적에 관심을 둔 이론이 등장한다. 그리스어로 ‘목적’, ‘목표’를 의미하는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명칭을 따온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한스 페르미어(Hans Vermeer)와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로 페르미어는 언어학만으로 번역과정을 설명하고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고 행위 이론을 번역에 접목시킨다.<sup>2)</sup>

(번역과정을 설명하는데 언어학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첫째, 번역하는 것에는 언어학적 변환 과정 그 이상의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언어학은 아직까지 번역의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을 돌려 다른 분야를 살펴보고자 한다. (Nord 127 재인용)

페르미어는 언어학 중심의 접근법에서 벗어나, 번역 과정을 번역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즉 번역을 ST에 근거한 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모든 행위에는 ‘스코포스’, 즉 ‘목적’이 있음을 강조한다(Vermeer 2000: 221). 또한 페르미어는 행위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act of behaviour)이 참다운 행위(action)로 간주되려면,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었는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1987: 176)”고 밝혔다.

- 1) 본 연구에서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읽는 아동문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문학의 언어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유아기와 저학년 어린이로 독자층을 한정하기 위해서이다.
- 2) 페르미어는 인간의 행위를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도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행동으로 정의한다(Nomad 1997: 11).

위의 행위 개념을 실제 번역에 적용해 보면, 번역가는 번역을 할 때 A 라는 방식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B 방식으로 번역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번역 방법을 달리하게 한 번역의 목적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즉, 번역도 하나의 행위인데, 어떠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그 목적이 있기 마련이므로, 번역이라는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해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스크포스 이론의 핵심이다.

이전의 번역학 이론들이 ST(Source Text)를 중심으로 모든 번역과정과 번역 결과물을 평가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스크포스 이론은 TT(Target Text)를 중심으로 번역을 논하고 번역의 방향과 과정을 가늠한다. 이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번역의 기능을 무엇보다 중시하며 등가 개념(equivalence)에 얽매어 있던 번역 이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ST 저자가 텍스트를 쓴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여 번역행위시 이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살려 번역을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번역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된다. 페르미어는 번역가가 번역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번역가는 ST 저자나 번역을 의뢰하는 출판사 등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서 ‘번역 위임 사항(Translation Brief)’을 전달받을 것을 제안하였다(2000: 229). ‘번역 위임 사항’에는 의뢰인이 번역을 위임하는 목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번역가는 ST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ST의 목적과 ST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스크포스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토대로 한다.

첫째, 번역행위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목적은 텍스트 독자에 따라 다양하다. (Hatim 2001: 74)

이처럼 텍스트 독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독자층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번역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독자층이 달라진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바뀔 때 따라 목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코포스 이론 하에서 번역과 관련된 주된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첫째, TT가 지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목적 (예, 텍스트의 목적이 설득인가, 정보 제공인가)
- 둘째, 특정 번역방법을 따르는 전략적 목적 (예, 광고 번역시 의역)
- 셋째, 번역가가 지향하는 일반적인 목적. (Hatim 2001: 75)

이처럼 스코포스 이론은 번역행위를 시작함에 있어 TT 의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독자층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하나의 큰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독자층이 아동으로 한정된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스코포스 이론을 고려하여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3. 아동문학 번역과 스코포스 이론

크리스티앙 노드(Christiane Nord)는 스코포스 이론에서 번역의 목적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독자라고 지적하였다(1997: 12). 독자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외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대치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페르미어는 번역은 TL(Target Language) 환경에서 TL 목적과 TL 독자에 맞는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번역은 특정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1987: 29).

많은 번역가들은 번역을 할 때 누가 번역문을 읽을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원문에만 충실하게<sup>3)</sup> 번역하면 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된 독자층은 누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할 경우, 직관에 의존하여 번역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번역은 단어 하나에서 문장형태, 단락 구성, 문체 종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선

---

3)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충실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택의 과정으로, 번역가는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것이 아닌 저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스키포스 이론을 적용하면 이것이 아닌 저것을 선택한 이유, 왜 저것이 최상의 선택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즉 번역은 하나의 행위이고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목적에 부합하는 번역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이 가능해진다.

특정 독자층을 강조한 스키포스 이론을 적용하는데 아동문학보다 더욱 적합한 문학 장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동문학과 스키포스 이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스키포스 이론의 주창자 페르미어와 이 이론을 한층 발전시킨 라이스, 노드 등 많은 번역학자들이 독자의 중요성과 번역시 독자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짐을 강조하였다. 독자층의 특성이 두드러진 아동문학은 그러한 점에서 스키포스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아동에게 좋은 책을 선정해 주고자, 혹은 개인적인 취향으로 성인이 아동문학을 읽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아동문학은 주 독자가 아동으로 독자층이 분명히 구분되는 분야이다.

대상이 아동이기 때문에 다른 문학과는 차이를 보이는 아동문학은 문학작품의 예술적인 측면 이외에 교육적인 목적이 분명한 장르이다(이성은, 임원재, 한상수 등). 따라서 텍스트의 목적과 의도를 철저히 살려 번역할 것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독자를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꼽는 스키포스 이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번역학계에서 아동문학 번역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핀란드의 오티넨(Oittinen)은 번역시 TT의 목적은 ST의 목적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2000: 12). 무엇보다 텍스트를 읽는 독자가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읽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ST와 TT 가운데 어느 쪽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SL (Source Language)로 쓰인 아동문학 작품이 어린이의 장래에 끼치는 중요한 의의와 역할, 교육적 가치를 TL 환경에서도 발휘하기 위해서는 TT의 목적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아동문학의 교육적 측면 이외에 문학적 측면에서도, 어린이에게 문학작품이 주는 흥미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쓰인 문학작품을 읽

고서 TT 의 어린 독자들이 ST의 독자가 받은 것과 같은 감동과 교훈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번역에서 ST 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ST 의 낯설고 독특한 요소들을 그대로 옮기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되어 아동문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어른들과, 모국어도 아직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은 독자로서 크게 다르다.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는 독자층에 따라 번역을 원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며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같은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1992: 115). 이처럼 번역을 할 때는 독자가 누구인지 누가 이 텍스트를 주로 사용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보리(Savory)는 독자를 다음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첫째 집단, SL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며 텍스트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독자층
- 둘째 집단, SL을 배우고자 하며 가능하면 번역된 작품을 통해 SL 지식을 쌓고 싶어하는 독자층
- 셋째 집단, 과거에는 SL 지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잊어버린 독자층
- 넷째 집단, SL에 능통한 독자층 (Reiss 26 재인용)

새보리는 이 네 부류의 독자층에게 적합한 번역 방식은 서로 다르다고 하며 첫째 집단에게는 변안(adaptation)하는 것이 알맞고, 둘째 집단을 위해서는 축어적 번역(literal translation)이 최상이며, 셋째 집단은 텍스트에 번역가의 존재가 느껴지는 번역 방식을 원하며, 넷째 집단은 번역의 한계를 극복한 단연 뛰어난 번역 작품을 원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중 본 논문에서 주목할 독자층은 첫 번째 집단이다. SL을 전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은 독자, 바로 아동들이야말로 이 집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독자층에게 적합한 번역 방식은 언어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변안이 권장되고 있다.

번역에서 아동이라는 독자층이 번역 방식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있다. 무닌(Mounin)은 번역의 범주를 다음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 첫째, 내용에 따른 종교 번역
- 둘째, 언어에 따른 문학 번역
- 셋째, 형식에 따른 시 번역
- 넷째, 독자에 따른 아동문학 번역
- 다섯째, 제시 방법에 따른 희곡 번역
- 여섯째, 기술적 요소에 따른 시나리오 번역
- 일곱째, 내용에 다른 전문 번역 (Mounin 1967: 113)

위의 넷째 사항에서 보듯이, 아동문학 번역을 독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이는 아동이라는 독자층을 다른 독자층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그룹으로 인식하여, 이에 따라 바람직한 번역방법도 달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번역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이 특별한 독자층 앞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많은 번역가들이 어린이를 위한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는 번안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ST의 목적에 맞게 번역을 하고, 독자층의 특성에 따라 번역방법과 목표가 달라진다는 ‘스킵스 이론’을 아동문학 번역가들은 번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4. 스킵스 이론에 대한 비판

투리(Toury)가 ‘스킵스 이론’과 ‘TL 중심의 접근법’을 논하며 지적하였듯이, 번역학계에서 TL 중심의 번역 이론이 20년 전만큼 그렇게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있다(1995: 25). 이는 많은 학자들이 점차 번역에서 TL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TL 중심 이론의 보편타당성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이 아닌가 해석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킵스 이론을 아동문학 번역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론적

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스코포스 이론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된 문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페르미어의 답변을 소개한 뒤, 아동문학 번역에 서는 왜 그러한 비판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지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스코포스 이론에 대한 비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행위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모든 번역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Nord 1997:

109)

번역을 행위로 간주하는 스코포스 이론에 대한 첫 번째 비판은 ‘모든 행위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특히 문학작품의 경우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집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 대해 페르미어는 ‘행위의 목적이 명백히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해도 잠재적인 목적은 찾아 볼 수 있고, 그 작품을 접하는 독자나 번역가에 의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Nord 1997: 110). 어떤 행위가 목적, 기능, 의도가 없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문학작품이 출판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면, 이는 명백히 행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였다. 페르미어는 더 나아가 명예나 부가 작품 활동의 동기가 된다고 이를 비난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있다(2000: 225).

실제로 아무런 목적이 없는 예술 활동이나 예술 작품은 상상하기 어렵다. 갑자기 산기슭에 핀 한 송이 꽃이 너무 아름다워 불현듯 시를 한편 지었다고 가정해 보자. 누가 이 시를 읽을지, 어떻게 이 시가 읽힐지,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 시장에 선보일 것인지, 명확한 의도와 구체적인 목표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를 쓴 목적은 찾아 볼 수 있다.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시를 쓴 목적인 것이다.

더욱이 이 시가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면 그 목적은 더더욱 확연해진다. 어린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할 것이며, 시를 쓸 때 아동문학의 목표와 가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모든 행위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첫 번째 비판은 아동문학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문학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읽고 감동과 흥미를 느껴 평생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문학의 경우에는 스크포스 이론에서 정의하는 번역이라는 행위에 뚜렷한 목적이 있다.

다음으로 스크포스 이론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모든 번역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번역가는 구체적인 목적, 기능,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ST에 있는 것’을 번역할 뿐이다.

둘째, ST의 구체적인 목적, 기능, 의도는 오히려 번역 가능성을 제한하여 TT의 해석 범위를 좁게 한다.

셋째, 번역가는 구체적인 독자나 독자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번역을 한다.

(Nord 1997: 110)

이에 대해 노드는 ‘ST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바로 번역의 목적이 될 수 있고, ‘ST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이 저자의 의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1997: 110). 그러므로 결국 번역가는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여 번역을 한다는 것이다. 노드의 주장은 일반적인 장르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를 아동문학으로 한정할 경우, 아동문학은 그 어느 장르보다 텍스트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번역시 그 목적과 의도를 더욱 분명히 살려야 한다.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위에 제시된 첫 번째 주장처럼 구체적인 목적, 기능, 의도 없이 그저 ‘ST에 있는 것’을 번역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 번역된 텍스트를 읽을 어린이들의 특성, 어린이들이 접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 저자가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번역을 하였을 경우, 어린이들이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훌륭한 번역 작품이 나올 수 없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목적, 기능, 의도는 번역 가능성을 제한하여 TT의 해석 범위를 좁힌다’는 비판에 대해 페르미어는, 번역의 목적에 치중하여 ST의

다양한 해석을 배제할 수는 있으나, 번역 행위에는 ST를 제대로 해석하려는 ‘목적’이 또한 있어서 오히려 적절한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또한 노드는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특정 TL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 번역에서는 의미 없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1997: 111). 아동문학의 경우, 노드의 이러한 주장은 더욱 적합하게 보인다.

간단한 예로 4세~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번역할 때 ‘difficulty’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difficulty’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곤경’, ‘난국’, ‘곤란’, ‘난해함’, ‘대처하기 어려움’, ‘수월하지 않음’ 등의 어려운 어휘는 부적절한 번역이라고 처음부터 제외시켰다면, 이것이 목적을 고려하느냐 ST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없앤 것일까? 오히려 독자의 지적 능력과 언어 수준, 이해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까지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인 효과적인 번역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스코포스 이론이 번역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레비의 ‘최소최대 전략(Minimax Strategy)’을 소개하고자 한다. 레비는 ‘불변의 핵심(Invariable Core)<sup>4)</sup>이 무엇인지, 즉 빠지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번역가의 결정 자체가 창조적인 행위라고 하며, 번역에서 번역가의 직관력을 강조하였다.

모든 기호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번역에도 그 자체의 실용적 차원이 있다. 번역 이론은 규범적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서 번역자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그러나 실제 번역 작업은 실용적이기에 번역자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장하는 가능한 해결책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말하자면, 번역자는 이른바 최소최대 전략을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Bassnett 1998: 36)

이처럼 레비는 번역가가 쉽게 번역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직관에 의지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하는 경향을 지적하였다.

4) 하나의 작품을 두고 여러 명의 번역자가 번역을 하였을 때 제각기 다른 번역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다. 이를 포포비치는 ‘불변의 핵심’이라고 칭하였다 (Bassnett 1988: 36).

번역가는 단어, 구, 문장, 단락, 문체에 이르기까지 항상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때마다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스크포스 이론에 따라 텍스트의 목적과 저자의 의도, 특정 독자층을 고려하여 그 경우의 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는 직관에 의존한 레비의 최소최대 전략에서 한층 발전한 형태로, 번역가의 시간과 고통을 덜어줄 것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스크포스 이론에 대한 세 번째 비판은 ‘번역가는 구체적인 독자나 독자층을 염두에 두지 않고 번역을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한 페르미어의 답변은 번역가가 독자층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독자층이 명확히 규정되는 경우도 많으며, 번역가는 어떤 경우에도 번역시 독자층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2000: 227). 노드도 저자나 번역가가 누구를 독자로 염두에 두는지, 아니면 적어도 누구는 독자 대상에서 제외하는지에 관해 희미하게나마 고려한다고 밝혔다(1997: 111).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문학의 경우 이 비판은 조금도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아동문학 작가가 집필을 할 때나, 아동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번역을 할 때, 독자인 아동들의 모습이 한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층을 분명히 마음속에 그리고 있기에, 텍스트의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그에 따라 번역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스크포스 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동문학의 번역에서는 스크포스 이론의 보편타당성이 주목을 받아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아동문학은 특정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명시적이건 함축적이건 간에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인 문학작품이다. 그러므로 번역을 할 때 텍스트의 목적을 파악하여 그 목적에 맞게 번역하자는 스크포스 이론을 적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르이다. 스크포스 이론의 이점으로 먼데이는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

스크포스 이론의 가장 큰 이점은 스크포스 이론으로 인해 TT의 목적과 번역가에게 주어진 위임사항(Commission)에 따라 같은 텍스트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Munday 2001: 80)

아동문학 측면에서 이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원래 성인을 대상으로 쓰였던 『걸리버 여행기』나 『로빈슨 크루소우』가 아동들에게 인기를 끌며 아동문학으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번역의 중요한 역할을 간과할 수 없는데, 그 번역과정에는 스코포스 이론이 적용되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걸리버 여행기』의 경우, TT의 목적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세태를 풍자하는 것에서 아이들에게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번역방식과 번역전략이 확연히 달라져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번역의 대상과 목적이 바뀌면서 『걸리버 여행기』는 아동이 읽기에 길어서 지루하지 않도록, 번역시 일부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장면과 표현은 삭제되었다. ST를 절대적인 존재로 숭상하던 이전의 번역 사조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번역행위는 아예 번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ST 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문 없이는 원문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하며, 텍스트의 의미는 원문이 아닌 번역문에 의해 살아난다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ist)<sup>5)</sup>의 주장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원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번역문이 독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아동들의 평생 독서 습관과 취미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아동기에 읽은 책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TT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번역하는 것이 잘못된 번역방법이라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다.

## 5. 결론

페르미어가 주창한 스코포스 이론은,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번역이라는 행위도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번역학 연구에서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에서 눈을 돌려 커뮤니케이션, 번역행위, 텍스트의

---

5) 프랑스의 철학자 데리다(Derrida)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해체주의는 언어, 언어 시스템, 언어로 규정하는 모든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어에 고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Munday 2001: 171).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문학번역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스킴 이론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작가가 문학작품을 집필할 때 독자층을 염두에 두거나, 문학작품에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학 분야에서는 번역시 스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아동문학은 독자가 아동으로 한정되어, 번역시 다른 장르보다 독자층의 특성이 강조된다. 또한, 아동문학은 정서적, 인지적으로 미완의 시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학의 교육적 목표가 분명한 장르이다. 아동문학을 집필하는 아동문학가는 독자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집필하나 번역하는 번역가는 간과하기 쉽다. 아동기에 읽은 책에서 감동과 흥미를 느껴, 평생의 독서습관을 형성시켜주고자 하는 아동문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번역시 텍스트의 목적을 살리자는 스킴 이론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는, 독자층의 특성과 텍스트의 목적을 고려하여 번역할 것을 권장하는 스킴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서정. 2003. 『어린이문학만세』. 서울: 푸른책들.
- 김신연, 최재선. 2001. 『아동문학의 이해와 활용』. 서울: 민속원.
- 김현희, 박상희. 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심성경 외. 2003. 『유아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이상현. 1987. 『아동문학 강의』. 서울: 일지사.
- 이성은. 2003. 『아동문학 교육 : 지식과 감성시대』. 교육과학사.
- 이재연. 1993. 『아동발달』. 서울: 문음사.
- 임원재. 2000. 『아동문학 교육론』. 서울: 신원문화사.
- 최경희. 1993. “동화의 교육적 응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상수. 1988. “한국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Bassnett, Susan. 1998.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efevere, André. 1992. *Translating Literature: Practice and Theory in a Comparative Literature Context*. New York: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Oittinen, Riitta. 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Garland.
- Puurtinen, Tiina. 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in *Meta* 43(4). 524-533.
- Reiss, Katharina. 2000. *Translation Criticism-The Potentials and Limitation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havit, Zohar. 1986. *Poetics of Children's Literature*. Athens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Snell-Hornby, Mary.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tolze, Radegundis. 2003. "Translating for Children- World View or Pedagogics?" in *Meta* 48(1-2). 208-221.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Vermeer, Hans. 1989.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in L. Venuti (ed. 200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 The Application of *Skopos* Theory to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Shin Jis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lthough *skopos* theory in translation studies has been sometimes regarded as inappropriate and irrelevant for literary transl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at *skopos* theory could be rightfully applied to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Skopos*' is a Greek word for 'aim' or 'purpose'. The *skopos* theory was developed by Hans Vermeer in the early 1980s, effectively shifting the focus of translation studies from ST-oriented approach to TT-oriented one. Vermeer views translation as an action that has clear purposes and subsequent results. The very action of translation would be successfully completed when its purpose is given due consideration. The *skopos* theory underlines the fact that purposes and intentions of ST should be reflected in translation.

The *skopos* theory is based on two assumptions: translation action is determined by translation purpose, and the purpose varies by readership. With regard to these assumptions, critics have questioned whether all actions have an intention, all translations have a purpose, and all translators have specific addressees in mind in translating a source text. As far as children's literature is concerned, however, such arguments are dwarfed by the fact that children's books have a clear goal to help children form a lifelong habit of reading.

Besides, it is hard to imagine a translator translating children's books without considering the prospective readership. If translators were aware of

*skopos* theory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young readers could benefit from high-quality translations.

▶Key Words: *skopos* theory, children's literature, ST-oriented approach, literature translation, translation action, specific addressee

신지선

소속 : 한국외대, 대우교수, 통번역부

연락처 : 019-415-9399

ideadom@hotmail.com

논문투고일: 2005년 10월 28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 2005년 12월 10일

K C I